



이화 소식

2007.10.05 제 80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골로새서 3:14 -

- 총장메시지_02
- 200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_04
- 본교 글로벌 경쟁력 대약진_05
- 유누스 그래민은행 총재 본교 명예 박사학위_11
- 이화 로스쿨 준비 본격화_12
- 본교 특성화 사업 박차_13

“그치지 않는 도전과 탐험으로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 그리고 이화를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화 가족 여러분. 유난히 비가 많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푸르고 높은 하늘이 이화 교정에 가을의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가을 하늘과 함께 제가 이화의 제 13대 총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음을 실감합니다. 참으로 숨가빴지만, 그만큼 보람찬 1년이었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출발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이화인의 맘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취임하면서, 이화 정신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주도하는 이화’, 즉 ‘이니셔티브 이화(Initiative Ewha)’를 새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대학 교육의 국제화는 세계 주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국내 대학은 물론 세계 대학과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 구도에서 다문화적 소양과 차별화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이화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본교는 지난 2월, 교내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교류처를 신설했습니다. 국제화의 역점사업인 해외 거점대학 구축은 지난 학기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북경 대학의 ‘이화의 날’ 선포를 계기로 ‘이화 in 베이징’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화 in 뉴욕’의 네트워크 구축도 완료되었으며 하와이, LA, 동경 및 유럽 지역의 거점 확보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만간 20여 거점지역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이화의 독창적 인재 교육 프로그램인 스크랜튼 학부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그간 국제학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국제학부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두 학부가 소속된 스크랜튼 대학을 출범시켰습니다. 스크랜튼 대학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및 국제학 분야의 우수 학생 유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올러 학문융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화된 지식 공동체를 선도하고자 지난 학기 설립한 이화학술원이 착실하게 자리잡고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화아카데미 렉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아시아학 연구 협동과정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평화학 분야·과학사 영역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고 구체적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이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여성 교육의 허브가 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려는 의지의 총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화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미리 앞을 내다보며 역사의 길을 선도해야 합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저는 이제부터 취임 당시 세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격 추진할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첫째,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단과대학별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단과대학의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점차 늘어나는 전

‘이니셔티브 이화’ 실현

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화가 국가의 ‘지식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가르칠 교수진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화는 우수한 교수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복돋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원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학·석·박사 전 과정을 8년에 마칠 수 있는 이공계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여학생들이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성교육의 선구가 되어온 이화가 우리 학생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민을 앞장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기 집중교육을 통해 학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여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커리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화의 브랜드 파워를 구현하는 리더십 교육을 확대, 강화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여성리더를 위한 이화리더십개발원과 본교생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센터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이화인재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소명의식과 인성교육은 물론, 커뮤니케이션과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평생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업 등으로 진출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핵심인재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법안이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화는 교수진, 시설, 커리큘럼 등 모든 면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본교는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도도하고 거대한 물결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화에도 과거 어느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거세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화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계승하면서 이제 이화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형까지 전체 이화가족들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8월말 후기학위 수여식에서 미국 시인 T.S 엘리엇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험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탐험의 완성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 와서 그곳을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이다.” 이는 졸업생에게만이 아닌 총장인 제 자신에 대한 격려이자 당부기도 했습니다. 저는 13대 총장으로서, 이화가 세계적인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원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이화의 아름다운 꿈에 함께 동행하면서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경쟁 시대의 선상에 선 이화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2007년 2학기, 이화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소망에 하나님의 축복과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멋진 새 학기, 멋진 새 출발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 배 용



200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린 시야, 유연한 리더십, 인류의 일꾼 되기를”

200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31일(금·오전10시) 본교 대강당에서 열려 이화인 1699명(학사 895명, 명예졸업 1명, 석사 740명, 박사 63명)이 사회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이배용 총장은 학사 및 석사 대표, 박사 63명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건네며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된 것을 축하했다. 이배용 총장은 학위 수여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화 교육의 보람된 결실이자 이화 정신의 구현체”라며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실패에 침몰하지 말며, 모든 것에 겸허하고 긍정적 자세를 토대로 가능성을 열어가라”고 격려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화의 정신은 조화와 균형, 화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전 세계를 향해 열린 시야를 갖고,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가진 지도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에 기여하고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공과대학 환경학 전공 강현지(04학번)씨가 4.3만점에 평균 4.13점을 받아 학부생 대표로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명예졸업자로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대학의 금속공예과 주임 교수인 김홍자(사진·68세·미술학과)씨가 입학 49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김씨는 1958년 자수과에 입학, 졸업 한 학기를 남기고 유학길에 올라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고 현재 미국에서 금속 공예가 겸 교육자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졸업생

돌아온 ‘5070 5인방’

2006학년도 후기 졸업생 가운데 ‘5070 5인방’이 단연 눈길을 모았다.

금혼학칙 폐지와 함께 이화 교정에 돌아온 50~70대 학생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입학한 지 53년 만에 학사모를 쓴 서정애(73세·사회복지학 54학번)씨를 필두로 김은희(68세·회화판화 58학번), 임정자(66세·사회학 61학번), 김명자(60세·불어불문학 67학번), 고인균(51세·영어영문학 76학번)씨 등 5명은 본교의 금혼학칙이 폐지된 직후인 2004년 3월에 재입학해 총 7학기를 이수, 졸업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최고령 졸업생인 서정애 할머니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입학 후 1학기만 마친 뒤 결혼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50년 동안 다섯 남매를 기르며 평생을



왼쪽부터 김은희(58학번)·서정애(54학번)·김명자(67학번)·임정자(61학번)씨

가정주부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지난 2003년 학교의 금혼학칙 폐지 방침이 전해졌고 남편은 망설이던 그에게 적극적으로 복학을 권했다. 손녀뻘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더니 처음엔 멧쩍기도 했지만 이내 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왕언니’ 대접을 누리며 즐겁게 어울렸다고. 결국 졸업 이수학점인 120학점을 훨씬 웃도는 132학점을 이수해낸 그는 “졸업 후 한국여성노인회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며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임정자씨도 “지난 3년이 평생에 걸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졸업장을 받았으니 그동안 스스로 모셨던 동문 교수님들이 이제는 모두 후배가 된 셈”이라며 활짝 웃었다.

본교 '글로벌 경쟁력' 대약진

- 중앙일보 '2007년 전국 대학평가' 결과 국제화 부문 '톱 5' 꼽혀
- 사시·행시·외시 등 고시 합격자 수도 상위 5위권 첫 진입



본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에 힘입어 본교의 국제화 경쟁력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9월 27일 발표한 '2007년 전국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국제화 부문에서 고려대(6위), 연세대(7위), 서강대(10위) 등 주요 대학을 제치고 종합 5위에 올랐다. ▲외국인 교수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전공 수업 중 영어강좌 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첫 도입된 국제화 부문 평가에서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본교가 불과 1년 만에 '톱 5'에 진입하는 저

력을 과시한 것 가히 '대약진'이라 할 만 하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팀은 "이화여대가 뉴욕·베이징·취리히 등 전세계 20개 거점지역의 60여개 대학에 학생을 파견하는 등 내·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본교는 '파워 엘리트'의 등용문인 3대 고시(사시·행시·외시) 합격자 수에서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에 이어 종합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사법·행정고시 합격자수와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수를 종합한 이 순위에서 본교는 한양대를 추월하여 빅 5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화 고시들풍의 주역인 행정고시반 학생들

〈중앙일보 전국 대학평가 주요 순위〉

국제화 부문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수		
순위	대학	순위	대학	합격자수(명)
1	KAIST	1	서울대	454
2	한국외대	2	고려대	194
3	한중대	3	연세대	186
4	부산외대	4	성균관대	85
5	이화여대	5	이화여대	70
6	고려대	6	한양대	64
7	연세대	7	부산대	36
8	동서대	8	서강대	23
	중앙대	9	경북대	22
10	배재대	10	전남대	21

한편 본교는 중앙일보의 '2007년 대학평가 종합 순위'에서 단독 9위를 기록, 지난해(3개교 공동 9위)에 비해 사실상 순위가 상승했다.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사회진출도 등의 부문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이배용 총장은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평가 지표를 꾸준히 개선하며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측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각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와 학문평가를 진행했다.

종합평가 대상은 4년제 대학 가운데 지난해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대와 산업대, 교육대, 종교대를 제외한 122개 대학(국·공립 24개, 사립 98개)이다.



왼쪽부터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배용 총장

국사편찬위원회와 학술·연구 교류 협정

본교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와 학술·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을 맺었다.

9월 27일(목·오전 11시)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양 기관은 ▲한국사 연구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공동 학술회의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술 자료와 연구 성과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배용 총장은 "해방 이후 한국사 연구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주도해온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교육에 앞장서온 본교가 손을 잡음에 따라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디딤돌이 놓아졌다"고 말했다.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과는 처음으로 맺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사 연구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 IMPACT 공연



뉴욕 IMPACT 워크숍

이화는 세계로 세계는 이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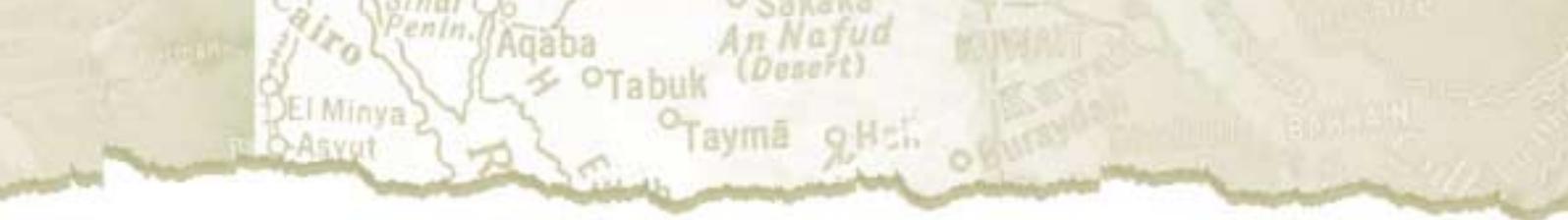
- 뉴욕대 썸머 워크숍으로 'Ewha in NY' 프로젝트 본격화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언어교육원 등 해외 대학과 잇단 학술 교류 협정
- 이화-하버드 썸머, 국제학생포럼 등 인바운드 행사도 '풍성'

표지2007년 8월 2일(금) 저녁 7시 30분. 미국 뉴욕대 블랙박스 극장(Black Box Theater) 무대에 40명의 동양 여성들이 등장했다. 춤과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연이 시작됐다. 몽환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에너지로 흠뻑 취한 관객들은 이들의 종합 예술 퍼포먼스에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예술과 문화의 중심도시 뉴욕의 한복판에서 공연을 펼친 이들은 바로 본교 예술대학 학생들. 뉴욕대(NYU) 음악대학이 이화 학생들을 초청해 개최한 썸머 워크숍 'IMPACT' (Interactive Multimedia Performing Arts Collaborative Technology)에 참가한 이들은 3주간의 코스를 통해 직접 만든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본교가 '글로벌 이화 2010'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거점 프로젝트 1호 'Ewha in NY'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무대에 섰던 송 정(작곡·3년)씨는 "이화여대를 다닌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당시의 감격을 전했다.

세계를 향한 이화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뉴욕 IMPACT' 처럼 학교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거점 프로젝트는 물론, 각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나 학생들의 해외 봉사에 이르기까지 방향 중에도 이화인들의 '글로벌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졌다.

사회복지전문대학원(원장 양옥경 교수)은 8월 3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이 대학 인문대학과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지난 6월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The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지 두달 만이다. 양옥경 대학원장은 "저개발 국가에 적합한 사회복지 모델과 프



‘글로벌 나눔’에도 구슬땀

“방학 기간 중 본교 재학생들의 해외 봉사를 통한 ‘글로벌 나눔’도 뜨거웠다. 사회봉사센터 주관으로 7월과 8월 중 몽골 울란바토르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봉사와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가 진행됐고, 해외 인터넷청년 봉사단 등 외부봉사단체를 통한 해외 봉사도 줄을 이었다.”

◀ 나이지리아 IT 교육 봉사에 나선 정외과 3학년 이인령씨(왼쪽에서 두번째)



▲ 사회복지전문대학원과 몽골 국립과학기술대 협정식
◀ 이화-하버드 썬머 프로그램 수업장면

로그럼 연구에 주력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어교육원(원장 윤영은 교수)도 8월 13일(월 · 오후 3시30분) 본관 소회의실에서 북경대 조선어과와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를 출간하기로 하고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교재는 북경대를 비롯한 중국 대학의 정규교과 과정 텍스트로 활용될 예정이다. 음악연구소(원장 박신화 교수)는 한국전통문화원, 연변대 예술학원 음악학부와 공동으로 6월 27일(수) 중국 연변대 예술학원에서 ‘해방 후 연변과 한국의 한국음악 관악기’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심포지엄과 연주회를 열어 음악을 매개 삼은 글로벌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세계를 향한 ‘무한확장’의 한편에서는 ‘안으로의 글로벌화’도 활발히 진행됐다.

국제대학원 한국학과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7월 10~23일까지 14일 동안 본교에서 ‘2007 동남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는 한국의 역사 · 문화 · 정치 ·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세미나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9개국 교육관계자 19명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국제대학원 주관으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과 본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화-하버드 썬머 프로그램’(6월 19일~7월 24일), 경영대학 주관으로 일본 · 중국 · 태국의 주요 대학 경영대 교수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토론한 ‘제3회 국제학생포럼’(8월 7일) 등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2007학년도 2학기 보직인사

이니셔티브 이화 주도할 진용 재정비

2007학년도 2학기 보직인사가 발표됐다. 의료원장에 서현숙 교수, 이화리더십개발원장에 함인희 교수 등이 임명됐다.



서현숙 의료원장



김기순 음악대학장



이혜숙 자연과학대학장



장화진 예술대학장



심봉석 동대문병원장



김양우 목동병원장



함인희 이화리더십개발원장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의료원장	서현숙	의학	
의무부총장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양옥경	사회복지학	유임
사회복지대학원장	오병권	시각디자인	유임
디자인대학원장			
실용음악대학원장	김기순	관현악	
음악대학장			
음악학부장			
자연과학대학장	이혜숙	수학	
예술대학장	장화진	서양화	
조형예술대학장			
조형예술학부장			
생활환경대학장	최혜선	의류학	유임
인간생활환경연구소장			
동대문병원장	심봉석	의학	
목동병원장	김양우	의학	
평생교육원부원장	정미영	독어독문학	
교무처부처장	이혜원	심리학	
교양영어실장	최주리	영어영문학	
전문영어연계전공주임교수			
이화교수학습센터소장	김영수	교육공학	
학생처부처장	차미경	문헌정보학	
학생상담센터소장			
양성평등센터소장			
국제교류처부처장	Jean S. Kang (강지현)	국제학	
박물관장	오진경	미술사학	유임
R&D혁신단장	박영일	디지털미디어학	
이화리더십개발원장	함인희	사회학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이화리더십개발원부원장	강민아	행정학	
대학원리더십학협동과정주임교수	이재경	언론홍보영상학	유임
이화미디어센터주간			
중등교육연구소원연구개발부장	서혁	국어교육	
중등교육연구소교육과정운영부장	정영란	과학교육	
정보통신연구소장	용환승	컴퓨터정보통신공학	
IGI원장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소장	최진호	나노과학	유임
이화인문과학원장	오정화	영어영문학	
통역번역연구소장	손지봉	통역학	
이화사회연구소장	조지형	사학	
이화하이닉스빈도체공동연구소장	신형순	전자정보통신공학	유임
음악연구소장	박신화	성악	
도예연구소장	강석영	도자예술	유임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장	장영민	법학	유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오세관	의학	유임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장	김미경	식품영양학	
부속유치원장	홍용희	유아교육	유임
부속초등학교장	김정효	초등교육	
국제대학원교학부장	김영규	한국학	
국제대학원한국학과장			
한국학과장			
한국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인표	국제학	
국제대학원국제학과장			
의학전문대학원기획부장	정상혁	의학	
의과대학기획부장			
교육대학원교학부장	한유경	교육학	
정보과학대학원교학부장	원숙연	행정학	유임
정책과학대학원교학부장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임상보건과학대학원교학부장	하현주	약학	유임
국어국문학전공주임교수	김미현	국어국문학	
철학전공주임교수	이지애	철학	
독어독문학전공주임교수	이준서	독어독문학	
미술사학과장	윤난지	미술사학	
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행정학전공주임교수	이근주	행정학	
심리학전공주임교수	이승연	심리학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유의선	언론홍보영상학	
언론홍보영상학전공주임교수			
여성학과장	조순경	여성학	
여성학연계전공주임교수			
수학전공주임교수	이향숙	수학	
동양학전공주임교수	김보희	동양학	유임
교육공학과장	강명희	교육공학	
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수학교육과장	이용하	수학교육	
법과대학교학부장	오종근	법학	
법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대학교학부장	이상국	약학	
약학과장			
국제학부장	마재신	국제학	
예방의학교실주임교수	이선희	의학	
피부과교실주임교수	최혜영	의학	
외과교실주임교수	김광호	의학	유임
방사선영상학교실주임교수	이경자	의학	유임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한재진	의학	

2007학년도 2학기 신입교수 33명

글로벌 명문대 도약 위한 우수 교수진 영입

외국인 교원 7명을 포함한 2007학년도 하반기 신입교수 33명이 이화의 새식구가 되었다. 본교는 우수교원을 꾸준히 영입해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대학(원)	전공/학과	교수명	성별	직위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
대학원	생명·약학부	강동민	남	부교수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대학원	생명·약학부	현동훈	남	조교수	(영)Univ. of London King's College	Ph.D.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박영일	남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Thomas Kalinowski	남	조교수	(독)Freie Universitat Berlin	Ph.D.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Bliss B. Pak	여	조교수	Univ. of Texas/Austin	J.D.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조인호	남	교수	State U. of New York/Buffalo	Ph.D.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방은경	여	조교수	연세대 대학원	치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박선행	여	조교수	연세대 대학원	치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박은진	여	조교수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박사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송동은	여	조교수	울산대 대학원	의학석사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최재남	남	교수	서울대 대학원	문학박사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전공	황준호	남	전임강사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Ph.D.
인문과학대학	철학전공	Dan Ernst	남	조교수	Yale Univ.	Ph.D.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정은경	여	전임강사	Univ. of North Texas	Ph.D.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전공	Mark D. Whitaker	남	조교수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이윤진	여	부교수	Brown Univ.	Ph.D.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전공	Christian Meny	남	부교수	(불)Univ. Louis Pasteur	Ph.D.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김미희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대학원	공학박사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Xinyu Zhang	남	전임강사	(중)Zhejiang Univ.	공학박사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박성희	여	전임강사	Purdue Univ.	Ph.D.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나은진	여	조교수	이화여대 대학원	문학박사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강영옥	여	조교수	Ohio State Univ.	Ph.D.
법과대학	법학과	김대인	남	조교수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법과대학	법학과	나현	남	부교수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과대학	법학과	도재형	남	조교수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법과대학	법학과	한만수	남	교수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법과대학	법학과	최경석	남	조교수	Michigan State Univ.	Ph.D.
법과대학	법학과	김병선	여	전임강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박사
법과대학	법학과	배현아	여	전임강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윤정구	남	교수	Univ. of Iowa	Ph.D.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정명호	남	부교수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약학대학	약학과	이병구	여	조교수	총북대 대학원	약학박사
교무처	교양영어실	Elena L. Sanchez	여	전임강사	Mills College	M.F.A.

2007학년도 2학기 승진 교원

교무처(처장 이상호 교수)가 2007학년도 2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학기 승진 비율은 65.6%이다.

교수 김혜순(의학), 김영주(의학), 정락경(의학), 이홍수(의학), 최주리(영어영문학), 최성만(독어독문학) 차남희(정치외교학), 이원재(생명과학), 김낙명(전자정보통신공학), 김희성(건반악기), 시흥기(약학)

부교수 박혜숙(의학), 천은미(의학), 김태현(의학), 권기환(의학), 이진희(의학), 서의교(의학), 윤하나(의학), 이정희(의학) 김동연(의학), 남궁권(정치외교학), 김세완(경제학), 김재성(생명과학), 김수정(시각디자인), 한유경(교육학), 여윤경(경영학), 장준(약학)

조교수 신희섭(영어영문학), 박선희(패션디자인), 김성훈(사회생활학), 서선희(식품영양학)

2007학년도 2학기 우수 교원

강의우수 교수 (전임교원) 신하윤(중어중문학), 박승하(체육과학), 궤혜선(약학) (시간강사) 백소영(기독교학), 서혜경(수학), 이경숙(교육학)

퇴임교수 프로필

“이화를 향한 사랑은 두고 갑니다”

이혜순 교수 등 8명이 2007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이혜순, 김옥조, 임숙자, 홍부길, 김숙자, 김길수 교수는 본교 명예교수로 임용됐다. (프로필은 가나다순)

김길수 교수(약학·23년 6개월 재직)



그는 '섬기는 약사'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이화 브랜드'의 약사는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 환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이같은 소신은 제자 교육과 행정에도 이어졌다. 약학연구소장, 약학대학장, 임상보건과학대학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학생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승이었으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든든한 뒷받침이었다.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 대한약학회장도 역임했다.

이종미 교수(식품영양학·18년 6개월 재직)



그의 이름은 전통음식의 과학화와 세계화 역사에 깊이 각인돼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음식문화학자로,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의 표준화와 과학화 연구에 힘썼다. 특히 '서울의 반기음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동료 교수와 후학들의 연구에 초석이 되고 있다. 이같은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회장, 김치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았고 한국영양학회 학술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김숙자 교수(체육과학·33년 1개월 재직)

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교수는 여성 체육지도자 배출과 한국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안으로는 체육학과장, 체육과학대학장 등을 거치며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경영대학원 여성 최고위경영자 과정, 평생교육원, 이화리더십개발원 등에서 열강을 펼치며 기관 발전의 견인차역을 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체육협회·대한체육회 부회장,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부단장, IOC 여성체육위원을 맡아 한국여성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혜순 교수(국문·34년 6개월 재직)

그는 한국 한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우리 고전문학을 일본·중국문학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한문학 비교연구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대표 저서인 '조선통신사의 문학'(1996), '고려전기 한문학사'(2004)는 비교문학의 정석으로 손꼽힌다.



이같은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지난 5월 본교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이화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국어국문학회, 비교문화회 등 여러 학회 회장을 거치며 국문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옥조 교수(도자예술·20년 6개월 재직)



그의 가르침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통도자, 현대도자, 도자예술, 산업도자를 넘나들며 제자들이 풍부한 미적 소양과 창의적 능력을 갖추고 도자예술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의 '산업도자 성형기법'(1990년) 등은 후학들이 이론과 제작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목록으로 꼽힌다. 1978년 제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6회의 초대 개인전과 160여회의 국제 초대전에 참가했고 프랑스 문화성 작품소장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숙자 교수(의류학·36년 6개월 재직)



그는 국내 의류학과 패션산업 발전과 함께 했다. '패션 마케팅'의 개념이 전무하던 70년대부터 옷차림이 심리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 패션머천다이징·마케팅, 의상사회 심리학 분야 연구와 발전을 주도했다.

전국 가정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의로학회 제11대 회장, 복식문화학회 제8대 회장 등의 활발한 대외 활동 기록은 패션과 산업을 접목시킨 임 교수의 독창적인 연구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여진 교수(작곡/이론·18년 6개월 재직)

그는 학문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예술'의 선구자였다. 음악과 물리학 등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시도했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획기적인 음악 이론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20세기의 12음 음계를 넘어서 새로운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은 그의 작품은 미국 유수 음악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됐다.

홍부길 교수(경영학·38년 재직)

그는 본교 경영대학 발전사의 산 증인이다. 경영대학이 법정대학 경영학과와 상경대학을 거쳐 오늘날 글로벌 여성 경영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기반을 닦는데 헌신했다.



그의 경력은 한국의 여성 경영 인력 양성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최고위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여성 경영인들의 리더십과 경영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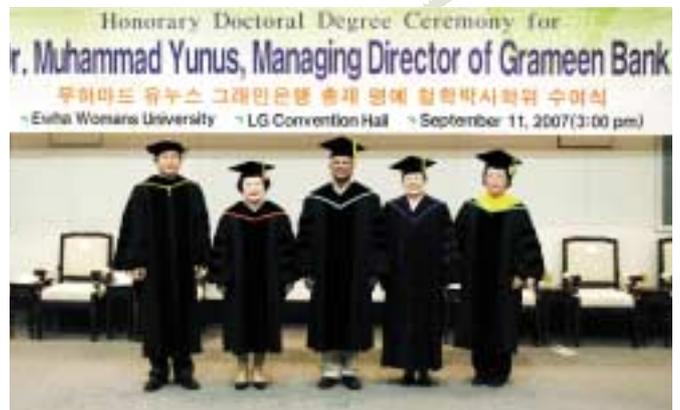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본교 명예 철학박사학위
 “여성의, 이화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본교는 9월 11일(화· 오후 3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총재에게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유누스 총재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빈곤퇴치 운동가. 빈민층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 자활을 돕는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창시하고 1983년 이를 확대시킨 그라민은행을 설립해 가난한 이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준 주인공이다. 그의 획기적인 빈곤 타파 모델은 전 세계에 확산됐으며 그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배용 총장은 “유누스 총재는 빈곤 퇴치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극빈층 여성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었다”며 “헌신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빈곤 퇴치와 인권 옹호에 앞장섰으며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누스 총재는 학위 수여에 대해 “이화여대는 학술적으로 명망이 높은 뿐 아니라 여성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찾는데 힘써온 대학”이라며 “여성 억압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해온 이화가 내게 학위를 수여했다는 것은 빈곤 퇴치 사업과 그라민은행의 정신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라민은행과 이화여대는 지난해 교류협정을 맺고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미 본교 학생 6명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그라민은행에서 연수과정을 밟았으며, 그라민은행 고객 자녀인 방글라데시 학생 2명이 본



왼쪽부터 손운산 교목실장·이배용 총장·유누스 총재·윤후정 이사장·이혜숙 대학원장
 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누스 총재는 이화학술원 해외석좌교수 자격으로 9월 10일(월· 오후 2~4시)과 11일(화· 오전 10시~오후 12시) 본교 음악관 김영의 홀과 LG컨벤션홀에서 ‘제 2회 이화학술원 강좌’를 열어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 뿐 아니라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사회와 국가를 더 빨리, 더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 로스쿨 출범 자신”

로스쿨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법대 교수진·인프라 대거 확충

본교가 2009년 출범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배용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스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신호탄으로 우수 교수진 영입과 법과대학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교는 7월 초 이배용 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로스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로스쿨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총장을 비롯해 법과대학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등 주요 관련 보직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부분 차원의 지원을 맡고 있다. 또 법과대학 내에 ‘로스쿨 설립준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도 마련중이다.

현재 ‘로스쿨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약 40곳. 이 가운데 본교는 로스쿨 인가가 안정권이라는 판단이래 정원을 보다 많이 배정받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배용 총장은 “우리 대학은 로스쿨 도입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로스쿨 전환에 대

비해 왔으며 교수진, 시설, 커리큘럼 등 모든 면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부한다”며 “로스쿨 유치는 물론 조기에 최고의 명문 로스쿨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교는 ▲전임교원의 지속적인 확충 ▲연구 업적 지표 향상을 위한 연구비 지원확대 ▲Pre-law 프로그램 구축 ▲미국 일본 등 우수 해외 로스쿨과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학관 내 법학도서관과 모의 법정 등 시설확충에도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수 전국 6위를 고수하며 명문 법대로 자리매김한 본교는 로스쿨 전환을 통해 세계 유일의 여자대학 법대이자 ‘여성법조인 양성의 메카’라는 자부심과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법학관 전경

김문현 법과대학장 인터뷰

“여성·조세 등 전문 법조인 양성”

●. 로스쿨 유치전이 치열한데

이화 법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법대로 입지를 굳혔다. 2000년 대학교육협의회 법학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최근 5년간 전국 6위·여성 합격자 기준 2위), 사법연수원 입소인원 대비 판·검사 임관율(최근 3년 평균 1위)과 같은 실적들이 그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여성 법조인 양성의 메카로서 로스쿨 인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 로스쿨 준비 현황은

로스쿨 운영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로스쿨 전환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로스쿨 전용 법학관,

초현대식 고시 전용 기숙사 등 하드웨어는 물론 최고의 교수진, 앞선 교수법,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 교수진의 경우 전체 37명 중 법조 실무교수가 8명에 이른다. 판·검사 출신 및 김안장 등 국내 굴지의 로펌 출신 변호사 8명과 미국 변호사 3명, 외교관 출신 2명도 포진하고 있다.

●. 특성화 전략은

여성 관련 법 분야의 특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학교 교육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거나 국내 어떤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인적·물적 기반을 축적하고 있어서다. 여성인권, 성평등, 여성노동자 문제, 가족법, 여성 범죄, 법여성학, 생명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

성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문영역 한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이다.

●. 이화 로스쿨의 장점은

법률가는 논리성과 치밀함이 중요한 직업인만큼 성실하고 꼼꼼한 여성에게 적격이라고 본다. 이화 로스쿨은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다. 보육시설과 같은 편의가 한 예다. 학교 차원에서 여성에게 최적의 환경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만큼 법조인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이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리라고 확신한다.



법학관 전경

‘나눔의 국제화’ 교육 수출 주도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분야 신규 지원 대학’으로 선정

본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3세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본교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2007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지정과제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이뤄낸 쾌거다. 이에 따라 본교는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한국형 개발 모델의 확산과 ODA 전문인력 양성사업 : ACE 전략을 통한 교육수출’· 최병일 국제대학원장을 사업단장으로 하는 이 사업은 개도국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 리더십 역량을 갖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교는 이 사업을 통해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12개 개도국을 집중 협력국가로 선정, 이화의 강점인 ▲개발협력 ▲한국어교육 ▲IT ▲디자인 ▲보건·환경 분야의 현장 중심형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70명(개도국 출신 30명, 본교 대학원 40명) 가량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 및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부전공’ 제도를 설치했다. 또 2008년 1학기부터 ‘기술개발 협동과정’을 신설, 개도국 유학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병일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 수출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교는 지난 2006년부터 제3세계 여성인재를 전액장학생으로 선발해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과 더불어 ‘나눔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각 대학이 주력하는 분야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지원 ▲기자재 확충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 중심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GPP 장학생들

과학·인문학 특성화에도 ‘앞장’



2005년부터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아온 본교의 ‘포스트 계층시대의 다학제간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 사업(사업단장:이서구 석좌교수)이 교육부가 7월 23일(월) 발표한 중간 평가에서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6억 7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엄정한 사업 관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본교는 ‘2단계 교내 특성화 사업:인문사회계열 연구소 육성사업’의 사업단 선정에 마무리하고 7월 10일(화·오후 3시)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이배용 총장 및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 위촉식을 가졌다. 인문사회계열 연구소 육성사업단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특성화 준비사업’(박창원 단장·국어국문) ▲사회과학연구소 ‘한국 사회 다양성 연구사업’(조성남 단장·사회) ▲교과교육연구소 ‘국제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사진·강순희 단장·과학교육) 등 총 3개 사업단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2007년 6월 1일~2008년 2월 29일) 동안 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경력개발센터, 경영대학원 대외 네트워크 구축 활발

비즈니스·과학기술 분야 여성리더십 개발

교내 기관들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대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학 중인 8월에도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협정 체결이 잇따랐다.

● 이화-GE 리더십 챌린지

본교와 GE 코리아(사장 황 수)는 8월 9일(목·오전 10시) 총장실에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이화-GE 리더십 챌린지'를 2008년부터 매년 여름 방학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화-GE 리더십 챌린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3박 4일간 합숙을 통해 GE의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실전 리더십과 커리어 개발,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팀 빌딩 등을 교육받는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경력개발센터의 함인희 원장은 "GE의 리더십 개발 교육 노하우와 본교가 축적한 여성 교육 전문성을 결합해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GE 리더십 챌린지

● 이공계 여성 교육 과정 운영

경영대학원(원장 박헌영)은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T·센터장 전길자)와 손잡고 이공계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경영 및 금융공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8월 23일(목·오전 11시 40분) 이화신세관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갖고 매년 2회에 걸쳐 해당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경영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WIST는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맡게 된다. 1기 과정은 10월 6일 시작되며



전길자 센터장(왼쪽)·박헌영 경영대학원장

과학기술경영 과정과 금융 교육과정이 각각 6주와 12주씩 진행된다. 전길자 센터장(본교 나노과학부 교수)은 "과학기술경영 과정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공학 교육은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공계 출신 여성들의 자기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T는 과학기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본교에 위탁해 운영중인 기관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업정보 제공 ▲정책연구 및 관련단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산자부 장관상 수상

본교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이 최근 산업자원부의 '2007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2004년 1차 선정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뽑힌 사업은 '바이오식품 신소재 시험평가·인증 통합지원사업'. 이에 따라 사업단은 2007년 6월부터 3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본교 식품영양학과 김미경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대상(주), 연세대,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대병원, 숙명여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대 등 산학연 참여기관 7곳과 손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회원 194개사, 개인회원 161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미경 단장은 "2004년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 3년간 총 55억원을 지원받아 유망 건강 기능식품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평가받았다"며 "특히 KT&G 중앙연구원, 중국 약재집단공사 등 2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13일(금) '2007년도 서울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는데 이어 9월 17일(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화의료원, 새 사령탑 맞아 재도약 다짐 '글로벌 이화, 글로벌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이 새 경영 진용을 갖추고 글로벌 의료기관을 향한 재도약을 선언했다. 이화의료원은 8월 22일(수)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정익숙 이화학당 명예 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이배용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숙 신임 의

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김양우 목동병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어 29일 동대문병원에서 심봉석 동대문병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서현숙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여자 의과대학 병원이라는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재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고객만족 경영 강화 ▲신명 나는 일터 조성 ▲신규 병원 진출 등 4가지 중점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새로 임명된 김양우 목동병원장과 심봉석 동대문병원장도 '변화'와 '도약'을 다짐했다. 김양우 병원장은 "최근 대학병원 대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대목동병원에도 일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현해 이화 브랜드에 걸맞는 병원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심봉석 병원장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나서는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램으로 이화인의 꿈에 날개를 달아 줄 경력개발센터, 예비 이화인의 궁금증을 풀어 줄 입학 홍보도우미, 인터넷 방송국 이화TV 기사와 2008학년도 입학전형 정보도 눈길을 끈다.

'이화로' 제30호 발간

입학처(처장 황규호 교수)가 고교생을 위한 입학 홍보 책자인 Ewh@ro 제3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본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글로벌 명문의 발판이 될 이화학술원·스크랜튼학부·해외거점 캠퍼스를 비롯, 'Ewha in 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뉴욕대 씬머 워크숍(IMPACT)과 2008년 초 완공 예정인 꿈의 캠퍼스 ECC 소개를 담았다.

또 CNN 서울지국장 손지애 동문(정치외교·81

학번), 이화복지장학기금 마련 교수음악회를 기획한 배일환 관현악전공 주임교수, 뮤지컬 배우로 맹활약중인 박해미 동문(성악·82학번) 인터뷰와 함께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꿈꾸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로 나간 이화인과 이화에서 활기찬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는 외국학생의 생활도 소개됐다. 이 밖에 이화인만이 누릴 수 있는 새내기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1학년 세미나', 다양한 프로그

기관단신



학생처(처장 이수미 교수) 새 학기를 맞아 9월 10~21일까지 3주 동안 개강맞이 페스티벌을 펼쳤다. 학생문화관 로비와 광장, 교내 카페테리아 '이화사랑' 앞 광장 등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본교 응원단 파이루스의 축하공연(사진)을 비롯해 매일 2~5차례씩 클래식 연주, 뮤지컬, 댄스, 사물놀이, 찬양 등이 선보였다.

이화학술원(원장 진덕규 석좌교수) 6월 22일(금) 대학원관 106호에서 제3회 이화학술원 교수포럼을 개최했다. 2007년 이화학술상 수상자인 이혜순 교수(국어국문학 전공)가 연사로 초청돼 '조선후기 여성 지성사의 전개-여성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김용숙 교수) 7월 2~13일까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공동으로 'IT 전문통역

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총 30시간 동안 기초 IT이론 및 통역 실습으로 진행된 이 과정은 IT통역의 입문 프

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회학과(전공주임 김우식 교수) 한국사회학회(회장 전태국)와 공동으로 6월 22~23일 포스코관과 LG컨벤션홀에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와 한국사회학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배용 총장을 비롯, 이노우에 일본사회학과장, 이삼열 한국철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목실(실장 손운산 교수) 2007년 1학기에 모아진 현금 881만 8110원(채를 현금 779만 850원·교직원 부활절 예매 현금 102만 7260원) 중 650만원을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카상카지 지역의 식수펌프 설치 비용으로 전달했다. 또 우즈벡 지역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양 구매 자금으로 231만 8110원을 지원했다.

'이화인', 공모전에서 빛나다

'영에이지 편 앤 프리 공모전' 대거 수상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2학년 학생들이 6월 27일(수) '영에이지 편 앤 프리 공모전'의 마케팅 아이디어 부문(패키지 테마)에서 금상, 은상, 입선에 당선됨으로써 이 부문에서 주어진 총 7개 상 가운데 5개를 휩쓸었다. 양윤주(금상), 육세은(은상), 남궁진선·임가희·노영아(입선) 등 학생 5명은 지난 1학기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의 전공수업 과제물을 출품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별도로 이들의 지도교수인 김수정 교수는 '학교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본교 학생들의 출품작이 창의성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발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콰이어가 주최하는 '영에이지 편 앤 프리 공모전'은 주요 산학협동 공모전 가운데 하나. 슈즈 디자인과 마케팅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수상작은 향후 상품화에 적극 활용된다.

'한경 경제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주희·정성진 씨(경제학과·3학기)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 5회 한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논문 주제는 '단기자금이 자산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언론에서 부동산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구 결과 시중의 대규모 단기자금은 실제로 자산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특징적 현상인 단기자금 증가를 통한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참신하고 비주열한 편집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준비기간이 촉박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도교수님(김세완 교수·경제학)을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는 두 사람은 향후 금융계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주희(사진 왼쪽) · 정성진씨



왼쪽부터 양윤주 · 남궁진선 · 김수정 교수 · 노영아 · 육세은 · 임가희씨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정년 · 명예퇴직 직원 5명

관재과 김영재 부처장 등 5명이 정년퇴직과 명예퇴직(2007년 8월 31일자)으로 오랜 기간 몸담아온 이화를 떠났다. 이 가운데 권상호(총무과), 최천금(총무과), 이계호(후생복지과) 직원은 2007년도 상반기 사립대학교 퇴직직원 표창(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퇴임직원을 위한 환송 예배 및 하계 전체 직원모임은 8월 22일(수·오후 1시)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김영재

권상호

최천금



이계호

박미숙

구분	소속	성명	직위	근무내역
정년퇴직	관재과	김영재	사무직원(부처장 겸 과장)	용도과/관재과/총무과/구매과/관재과 33년 10개월 근무
	총무과	권상호	기능직	총무과 32년 4개월 근무
	총무과	최천금	기능직	총무과 29년 7개월 근무
	후생복지과	이계호	기능직	후생복지과 18년 5개월 근무
명예퇴직	학생복지센터	박미숙	사무직원	총무과/예산과/회계과/학생복지센터 29년 6개월 근무

신비와 저항 | 도로테 질레 지음 / 정미현 옮김

저명한 여성 신학자 도로테 질레의 역작. 운몽으로 신학을 펼쳤던 그녀의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신비주의 전통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결국 신비주의가 모든 종교에 있는 반권위적 요소를 이해되고, 나아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저항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1만7000원>

시점 | 조엘 마니 지음 / 김호영 옮김

영화 매체를 특징짓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시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모범적인 개론서이다. 1부에서는 영화적 시점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한 연대기적 고찰이 진행되고, 2부에는 다양한 인용문들과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실고 있다.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다. <8000원>

**논어 품질경영** | 박재홍 지음

'품질경영'과 논어 정신의 접목을 처음으로 시도한 흥미로운 책. 저자는 한국인의 의식은 우리 고유의 사상인 하늘(天)사상과 유교사상이 큰 줄기를 이룬다고 보고, 품질경영의 토대를 논어에 근거해 전개해나간다. 리더십·고객만족 등 품질경영의 기본 용어를 논어의 핵심 사상인 인·의·예·지 등과 비교하여 풀어나간다. <1만3000원>

환경권론 | 석인선 지음

이 책은 아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미숙한 권리 개념인 환경권이 어떻게 정립되고 보장될 수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환경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 미국·일본·독일 등 여러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와 헌법적 근거 등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결국 환경권의 헌법상 규정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만5000원>

**천재인가 광인인가** | 이놀드 루드비히 지음 / 김정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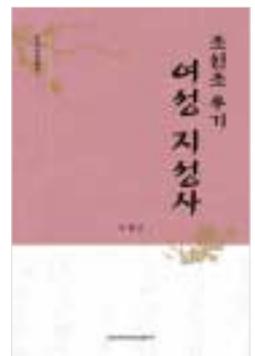
정신질환과 창의적 성취 간의 관련성을 탐구한 책. 이 연구를 위해 저자인 루드비히 박사(정신과)는 10년에 걸쳐 각계의 저명인사 1000명 이상의 광범위한 전기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정신질환과 창의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2만3000원>

『소년』과 『청춘』의 창 | 권보드래 외 지음

1908년 창간된 『소년』과 1914년 창간된 『청춘』의 고찰을 통해 근대 초기의 일상적 풍경을 제시한 책이다. 이 두 잡지가 보여주는 선구적이고 의도적인 잡종성은 한국 근대의 대중 문화와 일상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 <1만1000원>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 이해순 지음

김호연재, 임윤지당, 김경춘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문사·학자 7인을 여성 '지성'의 관점에서 심층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의 담론이 시대정신과 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지성의 담론이며, 무엇보다 이들 지성들의 사유와 의식이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2만5000원>



출판부 소식

본고 출판부가 펴낸 책 8종이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와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우수학술도서'는 학술도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문화관광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정재서 지음)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 (성기욱 외 지음)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 (안윤모 지음)
<한국의 일상 문화와 몸> (함인희 외 지음)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불교의 무아론> (한자경 지음)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진승권 지음)
<양자 시인-고든 모험> (안창림 지음)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마크 포스터 지음, 조지형 옮김)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소식

유순이 동문 1억원 기탁



유순이 이영희 27기 회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6월 26일(화) 김병순 이영희연합회 회장(왼쪽 두 번째)과 함께 이배용 총장을 방문, 1억원의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유 동문은 “이니셔티브 이화 구현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화ALPS동창회 25기 8000만원 전달

2007년 6월 7일(목)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이화ALPS 동창회 25기(회장 추말자)가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8000만원을 모아 7월 13일(금) 대외협력처에 전달했다.

강은정 80만원, 강장욱 180만원, 기외희 80만원, 김경애 80만원, 김경희 180만원, 김수림 180만원, 김영숙 180만원, 김정자 180만원, 김화성 80만원, 나인하 80만원, 노옥연 380만원, 동봉자 380만원, 두정란 180만원, 문미순 380만원, 박선숙 80만원, 박정화 280만원, 소춘희 180만원, 신정자 180만원, 안미경 880만원, 양옥자 380만원, 오명희 180만원, 오영란 880만원, 오혜순 380만원, 우민자 180만원, 윤경애 180만원, 이영복 380만원, 이지현 80만원, 조정렬 80만원, 최영숙 180만원, 추말자 880만원

초등교육과 동창회 1억원 약정

초등교육과 5월 31일(목)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50억원을 약정한 후 초등교육과 동창회(회장 김세향)가 1차로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억원 약정 목표를 달성했



다. 이대 부속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동창들이 주축이 되고 초등교육과 교수들과 초등교육과 동창회 역대 임원진 및 동창들이 협력해 1억원을 약정했다. 김회장은 “모든 동문들이 하나되어 자발적으로 협력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학과 동창회 1억원 약정

사학과 동창회(회장 오영옥)도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오회장은 “많은 동창들이 우리 과 출신인 이배용 총장님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이화 비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어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창들이 마음을 모아 더 많은 성금이 답지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학과 동창회는 재직 교수를 포함한 모든 동문들이 가수별로 모금에 나서 총 1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이화ALPS합창단 ‘미소나눔 음악회’로 5000만원 기탁



정책과학대학원 여성 최고지도자과정의 이화 ALPS합창단(회장 임주자)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6월 7일(목) 김병수의홀에서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마련 ‘미소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임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10주년을 맞이했고 합창단에서 함께 봉사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7. 6. 1 - 9. 5)

〈이화학술원기금〉 황유정(정외 85년 졸) 500만원, 최기찬 500만원
 〈교육·연구단지기금〉 영문 이정숙(77년 졸) 100만원 불문 이원옥(68년 졸) 1000만원 문정 이영자(68년 졸) 100만원 사복 김관숙(58년 졸) 300만원 수학 수학과 21기 300만원 생명 김용연(87년 졸) 200만원 음악 주영희(57년 졸) 1000만원 건반 강다영(04년 졸) 100만원 조소 양영희(93년 졸) 500만원 초교 조영석(61년 졸) 150만원, 홍혜자(61년 졸) 150만원, 이지연(65년 졸) 500만원, 김영자(70년 졸) 300만원, 설옥희(72년 졸) 100만원, 김세향(74년 졸) 500만원, 김승신(74년 졸) 100만원, 신은옥(74년 졸) 500만원, 홍선란(74년 졸) 100만원, 박정희(76년 졸) 100만원, 윤종숙(78년 졸) 100만원, 채제숙(80년 졸) 300만원, 김현주(83년 졸) 500만원, 구순옥(85년 졸) 300만원, 김영희(86년 졸) 300만원, 이현주(86년 졸) 100만원, 김선정(91년 졸) 300만원, 김성희(92년 졸) 300만원, 배은영(93년 졸) 100만원, 이봉희(93년 졸) 300만원, 이해지(96년 졸) 100만원, 정혜령(96년 졸) 5만원, 구성혜(98년 졸) 100만원, 심선희(98년 졸) 300만원, 박지윤(01년 졸) 200만원, 양혜주(01년 졸) 200만원, 선지희(02년 졸) 100만원, 손세미(02년 졸) 100만원, 하경애(02년 졸) 100만원, 김문영(03년 졸) 100만원, 박주연(03년 졸) 100만원, 이유경(04년 졸) 100만원, 이정아(04년 졸) 100만원, 조미경(04년 졸) 100만원, 김재인(06년 졸) 100만원, 한경인(07년 졸) 100만원 교공 교육공학과 1기 500만원, 심정식(84년 졸) 100만원, 이미영(84년 졸) 30만원 특교 박기영(83년 졸) 300만원 사생 익명(59년 졸) 1000만원 보교 임현숙(76년 졸) 300만원 비서 서정아(89년 졸) 100만원 의학 남가주지회 의대동창회 \$1000, 신영숙(70년 졸) \$1000, 이은일(70년 졸) \$1000, 김순재(72년 졸) \$1000, 김정희(73년 졸) \$1000, 안정옥(73년 졸) \$500, 금봉숙(74년 졸)\$1000, 김애권(74년 졸) \$500, 김동선(75년 졸) \$2000, 이의정(75년 졸)

\$2000 약학 박정숙(58년 졸) 100만원, 김은숙(60년 졸) 100만원, 김정숙(60년 졸) 100만원, 박수희(60년 졸) 100만원, 변양자(60년 졸) 100만원, 장현숙(60년 졸) 300만원, 함이정(60년 졸) 100만원, 김명자(66년 졸) 500만원, 이정자(66년 졸) 1000만원, 최의경(75년 졸) 300만원, 조서희(95년 졸) 1000만원 가정 박혜경(63년 졸) 100만원 평생교육원발전후원회 권경행 500만원, 김점이 500만원, 김희정 3000만원, 문정숙 500만원, 박순금 500만원, 박재근 300만원, 서정선 500만원, 양봉자 500만원, 윤순옥 1000만원, 이경자 300만원, 장연희 500만원, 정화숙 500만원, 조홍연 500만원, 흥종업 300만원, 익명 100만원 이영희연합회 현창숙(14기) 100만원, 권영현(52기) 1000만원 교직원 이은화(명예교수) 500만원, 양현혜(기독) 300만원, 오진경(미사) 500만원, 홍백의(사복) 100만원, 최대석(북한) 500만원, 김경화(수학) 500만원, 최원재(생명) 300만원, 조경숙(환경) 500만원, 김경숙(체육) 1000만원, 신은경(무용) 500만원, 이성은(초교) 1000만원, 정혜영(초교) 500만원, 최진영(초교) 500만원, 양혜순(영교) 500만원, 이은주(영교) 300만원, 강영옥(사생) 1000만원, 성효현(사생) 500만원, 차미희(사생) 500만원, 홍순태(교과) 500만원, 김영심(기획) 1000만원, 김정애(도서관) 100만원, 하인숙(도서관) 200만원, 김계순(산학협력단) 100만원, 손무인(보건소) 500만원 이화가족 김규연 300만원, 김명모 100만원, 김용건 200만원, 김철수 1000만원, 박성민 300만원, 심재학 1000만원, 윤영중 100만원, 이용석 300만원, 이정원 500만원, 정원진 300만원, 정재윤 1000만원, 조용준 1000만원, 한재환 200만원, (주)콘체르토키리아 2000만원, (주)화인 300만원, 동아항공스카이(주) 300만원, 흥국생명보험(주) 2000만원

▶ 이화소식 79호에 실린 명단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정기은(사북복지전문대학원 02년 졸) 1000만원, 이해원(의직 7년 졸·중부재단) 1000만원

수학과 동문 조윤임, 최영돈 부부 1억원 약정

조윤임 동문(수학 77년 졸업)과 남편 최영돈 씨가 9월 5일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평소 봉사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온 최 씨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부인의 모교에 기부할 것을 제안했고 30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조 동문은 흔쾌히 뜻을 같이 했다. 조 동문 부부는 "이대 졸업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내 발전기금 (약정기간 : 2007. 6. 1 - 9. 5)

이화캠퍼스센터(ECC)건축기금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1000만원, 장윤미(불문 77년 졸업) 20만원, 사학과 10기 130만원, 사학과 33기 250만원, 사학과 34기 250만원, 기독교학과 12기 80만원 **21세기발전기금** 김홍자 1400만원 상당 은 세공 장식 거울 기증 **철학과발전기금** 철학과동문회 1000만원, 정대현(명예교수) 1000만원 **중고C동 동물실험실기금** (주)삼화에이스 1800만원, 동서기연(주) 6000만원 **특수교육과발전기금** 에이스트피어윙스(주) 1000만원 **경영대학발전기금** 국제회의센터 387만1486원, 이영희 65기 1000만원, 박양덕(37기) 1000만원, 김병순(57기) 1000만원, 김명재(97기) 1000만원, 박찬욱(25기) 1억원, 이은성(30기) 1000만원, 지순영(36기) 1000만원, 김선경(37기) 200만원, 김혜란(39기) 1000만원, 권영현(52기) 1000만원, 이종심(55기) 1000만원, 김

영희(60기) 2000만원, 홍명숙(63기) 200만원, 김정자(65기) 1000만원, 은종인(66기) 500만원, 안미자(68기) 300만원 **국제전문여성능력개발기금** 황은미(비서 77년 졸업) 200만원 **외과대학사랑실천기금** CJ(주) 200만원 **의류직물학과기금** 의류직물학과동창회 200만원, 대신제분(주) 3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우경숙(의학과 72년 졸업) 2000만원, 김철수 1000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최동철 1000만원 **통역번역대학원발전기금** 한일과 4기 70만원, 한일통역과 5기 일동 20만원, 신혜인(93년 졸업) 10만원, 문현선(95년 졸업) 10만원, 이은정(95년 졸업) 10만원, 박은영(97년 졸업) 10만원, 정지영(97년 졸업) 10만원, 송지영(98년 졸업) 10만원, 정재민(98년 졸업) 50만원, 김세정(99년 졸업) 50만원, 명수현(99년 졸업) 50만원, 임선영(99년 졸업) 50만원, 정수경(99년 졸업) 10만원, 김현수(01년 졸업) 10만원, 박희현(01년 졸업) 10만원, 유효미(01년 졸업) 10만원, 조민경(01년 졸업) 5만원, 오미형(02년 졸업) 10만원, 이현숙(02년 졸업) 10만원, 최문선(02년 졸업) 50만원, 김정아(03년 졸업) 5만원, 이지은(03년 졸업) 10만원, 천별이(03년 졸업) 10만원, 허지운(03년 졸업) 10만원, 황희숙(03년 졸업) 10만원, 김인행(04년 졸업) 10만원, 박성신(04년 졸업) 10만원, 박정연(04년 졸업) 20만원, 심윤섭(04년 졸업) 10만원, 은미경(04년 졸업) 30만원, 이수아(04년 졸업) 10만원, 이숙현(04년 졸업) 5만원, 전성경(04년 졸업) 10만원, 한미선(04년 졸업) 10만원, 박윤경(05년 졸업) 10만원, 박정소(05년 졸업) 10만원, 이진(05년 졸업) 10만원, 이현주(05년 졸업) 10만원, 전해심(05년 졸업) 10만원, 정효빈(05년 졸업) 10만원, 한아름(05년 졸업) 10만원, 김남경(06년 졸업) 10만원, 김하연(06년 졸업) 10만원, 김현오(06년 졸업) 10만원, 성미강자(06년 졸업) 10만원, 신다영(06년 졸업) 10만원, 심소정(06년 졸업) 10만원, 이지혜(06년 졸업) 10만원, 강경진(07년 졸업) 10만원, 객재영(07년 졸업) 5만원, 김해진(07년 졸업) 5만원, 박상희(07년 졸업) 5만원, 박성희(07년 졸업) 10만원, 송화영(07년 졸업) 10만원, 정보나(07년 졸업) 5만원, 김고은(통역) 30만원, 이유희(통역) 100만원, 조영주(통역) 30만원, 신지선(번역) 30만원, 최미경(번역) 30만원 **유아교육발전기금** 오후석 20만원 **초등교육발전기금** 김영일 5000만원, 김홍식 500만원, 이병오 500만원

장학금 소식

원인상 추모 선애은인격(善愛恩人格) 장학금 1억원 기탁

익명을 요구한 동문이 8월 3일(금) 시대에 앞선 정신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인격자이셨던 할아버지 고(故) 원인상님 추모를 위해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원인상 추모장학금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졸업 후 다시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선순환 에너지 구축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 재정적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신학기에 4학년이 되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법대, 의대, 약대 제외) 1명을 선발해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 동문은 사후 본인 소유의 집도 장학금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성정순장학금 1억4000여만원 학교에 기탁

성정순 명예교수가 6월 11일(월) 1992년부터 모아 1998년부터 체대 학생들에게 지급해 온 성정순장학금 1억 4000여만원을 본교 기탁장학금으로 보내왔다. 성 교수는 본교 체육학과를 1949년 졸업하고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1992년 8월 정년퇴직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 12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외과대학 동창회 양경희장학금 1억원 등 총 1억8000만원 기탁

외과대학 동창회가 9월 4일(화) 양경희장학금 등 총 1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대외협력처에 전했다. 양경희 동문(의학 88년 졸업)은 "대학 진학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한 언니 도움으로 대학을 다녔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경제적 곤란을 겪는 공부 잘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 외 장학금을 보낸 의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화숙(71년 졸업) 1000만원, 우경숙(72년 졸업) 2000만원, 강명희(77년 졸업) 50만원, 고순정(77년 졸업) \$500, 김경한(77년 졸업) 50만원, 김매자(77년 졸업) 100만원, 김명숙(77년 졸업) 50만원, 김명희(77년 졸업) 50만원, 김선자(77년 졸업) 50만원, 김신희(77년 졸업) 50만원, 김애령(77년 졸업) 100만원, 김영진(77년 졸업) 50만원, 김정란(77년 졸업) 50만원, 김정순(77년 졸업) \$500, 김정혜(77년 졸업) 50만원, 김천숙(77년 졸업) 50만원, 김충희(77년 졸업) 80만원, 김혜란(77년 졸업) 50만원, 남형자(77년 졸업) 50만원, 박찬금(77년 졸업) 50만원, 변주현(77년 졸업) 100만원, 송선희(77년 졸업) 150만원, 송혜설(77년 졸업) 50만원, 안명호(77년 졸업) 50만원, 유남수(77년 졸업) 50만원, 윤소영(77년 졸업) 100만원, 이근자(77년 졸업) 50만원, 이명애(77년 졸업) 50만원, 이상기(77년 졸업) \$500, 이용주(77년 졸업) 150만원, 이현섭(77년 졸업) 50만원, 이혜성(77년 졸업) 2070만원, 이혜영(77년 졸업) 150만원, 임계원(77년 졸업) 50만원, 임옥순(77년 졸업) 70만원, 장명주(77년 졸업) \$500, 장혜란(77년 졸업) 50만원, 전해상(77년 졸업) 50만원, 정미경(77년 졸업) 50만원, 정복숙(77년 졸업) 50만원, 정인숙(77년 졸업) 50만원, 조혜제(77년 졸업) 50만원, 주재분(77년 졸업) 100만원, 최번숙(77년 졸업) 50만원, 최순희(77년 졸업) 50만원, 최의숙(77년 졸업) 100만원, 한혜영(77년 졸업) \$500, 함선애(77년 졸업) 100만원

그 밖의 장학금

안인희(명예교수) 500만원, 최진호(석좌교수) 2000만원, 이경은(의학) 518만원, 이순남(의학) 500만원, 박광서(CEO 겸임교수) 30만원, 박명희(국문 75년 졸업) 500만원, 유중근(영문 67년 졸업) 600만원, 김희정(영문 03년 졸업) 5000원, 성혜옥(영문 70년 졸업) 100만원, 박혜정(정외 77년 졸업) 300만원, 김지연(신방 96년 졸업) 1만1200원, 김윤애(심리 00년 졸업) 2만원, 조연희(통계 00년 졸업) 1만원, 조선희(법학 05년 졸업) 2만원, 박주순(의학 91년 졸업) 5000원, 이미경(북한 07년 졸업) 535만8000원, EMTOP총동문회 700만원, 이명경(신대원 01년 졸업) 200만원, 김현희(임상치의학대학원 06년 졸업) 100만원, 추선희(이영희 기금) 345만3000원, 박지영(대협) 2만원, 손영호 150만원, 신완 523만7000원, 이남재 483만3000원, 채희선 4만원, 최규옥 100만원, 한영자 1200만원, 황수진 5만원, (주)FTU 352만1000원, 대학교회 200만원, 우림건설(주) 483만3000원, 이화민주동우회 200만원, 조산장학재단 400만원, 한국근우회 2000만원



월터 선생님의 체육시간

한국 여성 리더십 훈련의 선구가 되다

제5대 당장 **진네트 월터** (1885-1977)

김수자(이화역사관 연구원)



방학을 마친 이화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활기차게 움직인다. 스승은 제자의 재능과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학생들은 스승의 뜻을 따라 이화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

초기 이화학당 선교사 선생님들의 제일 큰 관심사도 교육을 통해 이화의 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맘껏 스스로를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이끌었던 분이 월터 선생님이었다. 이화학당의 제5대 당장을 역임한 월터 선생님은 당장 재임기간은 1921~1922년으로 비록 길지 않지만 이화의 교육과 발전에 한평생을 바친 이화의 큰 스승이었다.

선생님은 1911년 이화학당의 대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1933년까지 이화에 봉직했으며 귀국 후에도 이화를 돕는 일에 앞장선 진정한 이화인이었다. 1885년 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래트롭(Latrobe)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집안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월터 선생님은 노스웨스턴 대학을 거쳐,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10년 프라이 당장이 다른 어느 학교 보다 먼저 대학과를 설치해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후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양질의 대학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프라이 당장은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선교부에 고등교육을 담당할 만한 선교사 파견을 호소했고 그 결과 월터, 파이, 하몬 등 세 분의 교육

선교사가 1911년 이화에 도착했다. 이때 이화의 학생들은 흰옷을 입고 골목에 줄지어 서 찬송가를 부르며 세 분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날의 감격은 월터 선생님이 한평생 이화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월터 선생님을 비롯해 당시 선교사 선생님들은 전공과목 외에도 한국 여성의 개화를 위한 활동을 개발, 보급하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학생활동 장려와 체육 교육 강화가 그 대표적인 일이다. 월터와 파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키워주기 위해 체계적인 체육 강의를 시작했다. 체육시간에 한복이 가슴을 꼭 조여 비활동적이라고 여긴 두 분은 치마의 고정부분을 개량한 조끼허리치마를 고안해 학생들에게 입히기도 했다. 활동하기 편한 이 조끼허리치마는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지도 또한 월터 선생님의 주된 관심사였다. 학생들 사이에 '큰언니 운동(Big Sister Movement)', '공주회(Kings Daughters Circle)', '무흠단(Purity League)' 등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적극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앙과 봉사정신, 자치능력을 고양시켜 여성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을 키웠다.

선생님이 이화의 큰 스승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는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선생님은 3·1 운동으로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시신을 일본 경찰에게 인수 받아 그녀의 '영웅스러운' 행동을 기리며 비단 수의를 입혀 장례를 치르는데 앞장섰다.

월터 선생님은 1921년 프라이 당장이 생을 마감한 후 제5대 당장이 됐으나, 1922년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미국에 지인이 많은 아펜셀러가 이화의 당장으로 적임자라며 이사회에 사표를 냈다. 이후 10월 아펜셀러 선생에게 당장직을 물려주며 이화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에 옮기는 의연함을 보였다. 이후 아펜셀러 당장이 학교 전체를 총괄하며 학사 일정을 담당하는 가운데 월터 선생님은 재정, 건물 신축, 증축 등과 같은 일을 도맡아 학교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1933년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월터 선생님의 이화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일생동안 계속됐다. 특히 한국전쟁 동안 이화에서 봉직했던 칸로, 모리스 선생님 등과 '이화의 친구들(Friends of Ewha)'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화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같은 이화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과 열정이 높이 사 학교에서는 1959년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의 한국 여성교육과 이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렸다.